◇충북 충주시 숭선사터에서 국내 최초로 출토된 금동연봉 장식.

금동연봉장식 국내 첫 출토

충주 숭선사터…명문기와도

고려 태조 왕건의 둘째 부인(충주 유씨)이 죽은 뒤 아들 광종이 창건한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숭선사터에서 금동 연봉 장식이 국내 최초로 출토됐다. 지금까지 전하는 연봉 장식은 대부분 조선시대 백자 와정이며, 지붕에 금동 연봉 장식을 썼다는 기록도 전하는 게 없어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충청대학 박물관(관장 장준식)은 17일 현장 설명회를 갖고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숭선사터 2차 발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다량의 금동연봉 장식과 사찰 이름이 새겨진 기와, 분청 철화 당초무늬병, 음각 연화문 접시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국내 최초로 발굴된 금동연봉장식은 길이 33cm, 연봉 폭 3~4cm, 철정 지름 약 1cm의 마름모 모양으로 4개의 연꽃잎을 겹꽃으로 표현했다. 장준식 관장은 "금당의 지붕 윗면 가장자리에 박았던 와정을 금빛 찬란한 연봉 장식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을 볼 때 당시 화려했을 건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며 "국가 주도로 창건된 숭선사의 사격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춘 창숭선사 추복선비(春 創崇善寺 追福先妣)', '□국사(國寺)', '성화 십오년(成化十五年, 조선 성종 10년 · 1479년)' 등이 새겨진 명문기와의 출토로 창건 이후 3차례에 걸쳐 중창이 이뤄졌으며, 사역의 변화가 심했던 '만력(萬曆, 조선 선조 12년 · 1579년)'에 절 이름이 '□국사'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조사 때 발굴돼 큰 관심을 끌었던 분청사기 장군 안의 액체는 알데히드계와 케톤계의 화합물이 주성분이며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봐 꿀이나 꿀을 함유한 한약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물관은 덧붙였다. 아직 정확한 성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권형진 기자

뇌허 김동화 박사 탄생 100주년

세미나·전집출간 '뜻 기린다'

근대 한국불교학 초석 다져
'불교학 개론' 후학 필독서

근대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뇌허 김동화(雷虛 金東華, 1902~1980)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학문을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뜨겁다. 생애와 학문세계를 더듬는 학술 세미나에 이어 〈뇌허 김동화 전집(전 15권)〉도 다음달 출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25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원효관에서 '뇌허 김동화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애와 사상, 신행불교운동 제창과 전개, 뇌허의 학문세계의 비전과 그 계승, 김동화 선생과 입정대학 등의 분야로 나눠 '뇌허 김동화 박사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조명한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이봉춘 교수(동국대)는 "지금 불교학을 접하는 이들 가운데 김동화 박사의 학문과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현대 한국불교학은 김동화 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김동화 박사의 생애와 학문을 통해 한국불교학의 태동과 현실,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화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여 한국불교학 연구의 체계를 세운 대표적 학자다. 평생 22권의 저서와 200여 편에 이르는 논문과 논설을 남긴 그의 학문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소승 · 대승 불교, 중국 불교 및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대의 관심사는 불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였다. 불교사, 선사상사에서부터 구사학, 유식학 등 불교 교리 전반에 걸친 방대한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대 불교학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54년 지은 〈불교학 개론〉은 근대적 의미의 우리 나라 첫 불교 개론서로 강원 교재 외에는 불교관련 저서가 전무한 당시 상황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였다.

◇뇌허 김동화(1902~1980) 박사.

김 박사의 연구업적은 뇌허학술원(원장 관응)과 공동으로 간행위원회를 구성, 전집으로 출간한다. 〈불교학 개론〉 〈불교교리 발달사〉 〈원시불교사상〉 등 저서와 논문, 논설, 잡문을 모두 담았다. 11월 16일 오후 5시 동국대 상록원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054)770-2506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화엄석경 복원 2009년까지 컴퓨터그래픽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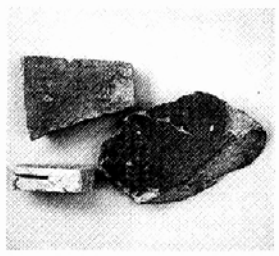
파편 1만6천여장 발견 … 화엄사 26일 세미나

전남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의 보존과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26일 오후 1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화엄사 화엄석경은 돌 경전으로,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문무왕 10년(670년) 화엄사 중창시 장육전(지금의 각황전)을 세우면서 네 벽을 흙 대신 화엄경을 새긴 돌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장육전이 불타면서 석경도 깨어져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만6천여 장에 달하는 파편들. 1961년 발굴조사 때 발견된 1만4천여 장은 1990년 보물로 지정됐다. 1999년 화엄사 동탑 수리 과정에서 380여 장이 발견된 이후 2천여 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존 석경은 그대로 보관하고 대웅전 뒤에 건립중인 보장전에 신라 당시의 화엄석경을 복원하는 작업은 지난해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맡아 하고 있다. 현재 판독 가능한 1만4천여 장에 대한 탁본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탁본과 정밀사진촬영을 토대로 2009년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깨진 조각을 맞춰 석경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원작업의 초점은 60화엄경과 80화엄경, 40화엄경 중 어느 것을 저본으로 석경을 만들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3~4가지로 추정되는 서체와 돌의 종류 역시 복원을 위해선 빠뜨려서 안 될 요소다. 최근에는 중국의 측천무후(690년 즉위)가 만든 글자체가 석경에서 확인돼 제작 연대 추정의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다.



◇보물 제1040호 화엄석경.

불교미술사가, 서예가, 석질학자, 금석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나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복원을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061)782-7600

권형진 기자

"석옥청공과 태고보우 선사상 사자상승 속단 이르다"

차차석 박사 주장

조계종 중흥조이자 태고종 등 10여 개 종단에서 종조로 모시고 있는 태고보우 스님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태고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주제의 학술 세미나가 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태고보우 스님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와 양평 사나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차차석(동국대 강사 · 사진)씨의 '석옥청공과 태고보우의 선사상 비교'였다. 태고보우 스님이 법을 인정받았다고 알려진 증국 임제종의 제18대 법손 석옥청공 스님과의 사상적 비교를 통해 태고보우 스님의 선사상의 본바탕을 직접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였다.

두 스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심성관과 수행관, 교학관과 사회의식을 살펴본 차 씨는 "둘 다 마음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했으며 승단의 문란을 비판했다는 점 등에서 사상적 상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도 "사상적 사자상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차이점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옥청공 스님의 어록에는 화두와 정토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비해 태고보우 스님은 화두와 유심정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석옥청공보다는 고봉원묘의 직계인 명본이나 천여의 사상적 경향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두 스님 모두 마음의 편재성이나 초월성에 입각해 사회현상을 보면서도 정치와 무관하게 청빈낙도를 즐긴 석옥청공과 달리 태고보우 스님은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차 씨는 이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사제지간의 영향인지 동일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며 "당시 이미 우리 나라에도 임제선이 전래되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묘청 스님과 팔성당

일반인들에게 묘청(妙淸, ?~1135) 스님은 풍수도참술을 부리는 술승으로, '묘청의 난'을 일으킨 요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궁예나 신돈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기록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술승이나 요승이 아닌, 긍정적 시각에서 스님을 다룬 것은 단재 신채호가 처음이었다. 단재는 '묘청의 난'을 고려 이후 천년의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역시 고승으로서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스님에 대한 기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에 의해 철저히 누락 · 왜곡되었고, 조선 초 성리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김부식의 사관을 따라 〈고려사〉 열전의 반역전에 올려 놓았다.

스님은 평양출신으로 속성과 본관은 알 수 없고 뒤에 이름을 정심(淨心)으로 바꿨다고 한다. 왕의 총애를 받고 조정의 근신으로부터 성인으로 추대되었으며 당대 문인 정지상이 추종할 정도의 고승이었다.

스님은 궁궐에서 관정도량 · 반야경도량 · 무능승도량을 수십일 간 베풀도록 하였고 평양을 대화세(大花勢)의 명당이라고 하여 새로운 도읍터로 지정하였다. 그곳 임원궁성 곁에 팔성당(八聖堂)을 지었다. 이 팔성당에 여러 부처를 본지(本地, 본체)로 하고 모든 선인(仙人)을 수적(垂迹, 묘용)으로 하여

풍수도참술의 요승 '잘못 평가'
보수세력 맞서 불교혁신 시도

국내의 선인(仙人)을 각기 배당하였다. 이것은 바로 고유의 산악숭배사상과 외래의 선불(仙佛)사상을 혼합한 것으로 일종의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이란 것이다. 이 본지수적설은 오대산 오만진신(五萬眞身) 신앙과 같이 고대 이래 널리 행해졌던 것이며 〈삼국유사〉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백성의 복리(福利)와 왕조의 기업(基業)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며, 이 모두가 스님의 정토구현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런데 스님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다가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흔히 스님의 반대편에 섰던 김부식을 유가적인 사대주의자로 보지만, 그의 동생은 유가종의 승려였고 그 자신도 의천 스님의 비문을 지을 정도로 불교계와 가까웠다. 종국에 난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군대 가운데에는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인종의 총애를 받았고 민중들이 추앙했던 스님을 추종했던 승려들에 대한 흔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지만 아마도 스님은 당시 왕실과 밀착된 화엄종과 이자겸 등 문벌귀족과 연계된 유가종의 보수적인 성향에 맞서 불교계와 나라에 새로운 혁신을 바랐을 것이다. 그러기에 스님은 민중들을 구하고자 풍수도참을 방편으로 삼고 고려의 숨통을 쥐고자 하는 금 나라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맞서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황인규/동국대 강사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혹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